

# 아이돌→배우 김동준 “어디서든 빛나는 엔터테이너 되고 싶어”

그들 '제국의 아이들' 출신 김동준이 드라마와 예능을 넘나들며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JTBC 드라마 '경우의 수'를 끝마쳤고,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로 주연으로 합류했다. SBS 예능 '맛남의 광장'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최근 '경우의 수'를 마치고 뉴스와 서면으로 만난 김동준은 "8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며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촬영한 작품이라 유독 많은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경우의 수'에서 김동준은 다정한 남자 '온준수' 역을 맡아 '멜로 치트키' 열연으로 주목받았다.

"온준수"라는 역할을 만나면서 김동준이란 사람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죠. 김동준이라는 배우가 '온준수'로 온화하고 준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모든 분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시청자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경우의 수'는 10년에 걸쳐 서로를 짝사랑하는 두 남녀의 청춘 로맨스를 그렸다.

김동준은 극 중 '이수'(송승우)를 오랫동안 짝사랑한 '경우연'(신예은)을 향해 따뜻한 직진 로맨스를 보이는 출판사 대표 '온준수' 역을 연기했다.

이번 역할은 그가 지금까지 맡았던 캐릭터들과 또 다른 모습이었다. 드라마 '블랙'의 '오만수'는 살려고 울이 되는 재벌 2세였고, '어바웃타임'의 '조재유'는 인간미 없는 천재 감독, '보좌관'의 '한도경'은 소심하지만 열정이 있는 철부지 역할이었다.

## 다정한 온준수역... "최대한 힘 빼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할 때도 신경 썼다"

김동준은 "그동안 맡았던 모든 캐릭터가 눈치를 보거나 출신이 평범하지 않거나, 지나치

## 종영 '경우의 수' 다정한 온준수 역할로 주목

### 첫 고정 예능 SBS '맛남의 광장' 1년째 활약

### 차기작, 사극 '조선구마사'·영화 '간이역' 출연

게 열정적이다 보니 눈빛으로 모든 걸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강해 보이고, 독해 보이고, 혼란스러워하는 눈빛들이 많았다"고 떠올렸다.

반면 '온준수'에게는 따뜻함이 있었다. "온준수"는 온화하고 준수하다는 표현처럼 시선 처리도 최대한 힘을 빼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라봤고, 말할 때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떻게 하면 보는 분들이 더 설렘이 많이 생각했죠. '온준수'가 '우연'이를 바라보고 전하는 위로의 말이,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위로처럼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온준수'와 자신의 닮은 점은 50% 정도로 꼽았다. 그의 온화함이 부럽기도 하지만, 표현하는 데 답답함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온준수"라는 캐릭터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지켜봐주는 따뜻한 위로가 큰 매력"이라며 "후유증인지 요즘 '온준수'처럼 말을 예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준은 지난해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보좌관' 시리즈에 이어 '경우의 수' 그리고 차기작까지 배우로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배우로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춘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작품과 캐릭터를 만나려면 지금 다양한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배워가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죠. 저 자신에게도 연기 변신을 위한 변화를 준비하고 시도해보는, 조금은 불안하지만 설레는 사춘기와 같은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는 대중들과 공감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다. "같이 울고 웃어줄 수 있는 공감을 나눌 수 있는 배우이자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제가 전하고 싶은 감정을 그대로 '맛'아 나도 그렇지" 하면서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 배우는 작품마다 공감할 수 있어서 다음 작품에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해'라는 소리를 듣고 싶죠. 그런 배우로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해요."

## 첫 고정 예능 '맛남의 광장' 1주년 맞아... 짝 케미 자랑

연기 활동과 동시에 예능에서의 존재감도 보이고 있다.

데뷔 후 첫 고정인 예능 '맛남의 광장'은 최근 1주년을 맞았다.

김동준은 "벌써 1주년이 된 게 실감 나지 않는다"며 "'맛남의 광장'이 가진 선한 영향력과 백종원이라는 인간미를 가진 인물 덕분에 저와 멤버들이 1년을 함께 해온 게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말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예능감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했다"며 "'맛남의 광장'도 처음에는 프로그램에 민폐가 될까 봐 정말 고민이 많았다. 제 이런 격정을 날려버리고 멤버들이 바로 예능 캐릭터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이야기하고 믿으며 짝 케미로 촬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맛남의 광장'은 농어민들을 돕는 선한 영향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예능으로도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때회 제가 몰랐던 농어민들의 속사정, 사연을 알게 되면 늘 많은 생각이 드는데 꾸준한 관심이 꼭 필요하죠. 시청자들도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많은 농어민분들께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어요."

## "연기, 음악, 예능 모두 놓치고 싶지 않아... 소통 이어갈 것"

지난 2010년 그룹 '제국의 아이들'로 데뷔한 그는 어느새 10년 차가 넘었다. 아이돌로 시작해 배우의 길로 들어선 김동준은 '연기, 음악, 예능 어디서든 빛나는 엔터테이너'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어느 순간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나온 저의 과거는 몰랐던 것들을 직접 부딪치며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돌 활동과 예능, 연기 등 작은 역할 하나하나도 제게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도전했던 소중한 경험이자 지금의 김

동준을 만들어준 바탕이죠." 음악 활동 역시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김동준은 "가수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영원히 함께 가고 싶은 친구 같은 존재"라며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무대 위에서 열정적이고 싶어요. 가수와 뮤지컬, 무대에 대한 갈망은 아직도 크죠. 특히 노래하는 무대에서만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어요. 관객을 직접 만나면서 받는 에너지에서 느껴지는 색이 조금 다르죠. 배우로 연기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로 가수와 무대는 계속해서 되게 되는 원동력이예요."

그는 우선 내년에 판타지 액션 사극 '조선구마사'로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데뷔 이후 정식으로 사극 작품을 통해 또 다른 캐릭터와 달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촬영했던 '간이역'이라는 영화로도 인사드리고, '맛남의 광장'에서도 농번즈 멤버들과 함께 농어민, 시청자들과 소통해나갈 예정입니다."

# 선미·하니·청하·유아·츄 "달리기는 삶과 닮아"

엠넷 '달리는 사이', 오늘 오후 7시50분 첫 방송



"달리기는 삶과 닮은 것 같아요. 삶에서 생기는 '몰음표'가 달리면 '느낌표'로 바뀌는 느낌이죠."(EXID 하니)

평소 러닝 마니아인 그룹 'EXID' 하니는 K팝 여자 아이돌이 함께 출연하는 엠넷 '달리는 사이' 제안을 받고 처음엔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페이스를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룹 '원더걸스' 출신 선미, '오마이걸' 유아, 프로젝트 그룹 '아이오아이' 출신 청하, 그룹 '이달의 소녀' 츄와 시간을 보내면서 달리기 속도보다 인생의 풍경을 더 중요하

게 여기게 됐다.

하니는 8일 온라인으로 열린 '달리는 사이' 제작발표회에서 "소중한 무엇인가가 평생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지개에서 한 색깔이라도 빠지면 무지개가 아닌 것처럼, 소중한 '우리'가 됐죠"라고 말했다.

'달리는 사이'는 K팝을 대표하는 20대 여자 아이돌들이 '러닝 크루'가 돼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국내의 아름다운 러닝 코스를 찾아 달리는 '런트립(RUN-TRIP)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달리기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인생

과 달리는 삶과 닮았다'는 주제 아래, 여자 아이돌들이 달리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나눈다. 모델 장윤주가 러닝 DJ를 맡아 러닝 크루들이 달리기를 하는 동안 생각에 몰입한 주제를 던져준다.

러닝 크루 중에서 만인인인 선미는 "달리기와 새로운 친구들로부터 설렘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엔 출연 제의를 고사하려고 했다는 선미는 "단순히 연예계 선배 사이만을 다룬 프로그램이 아니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올해 데뷔 6년차인 유아는 "그동안 많은 분들과 마음을 나눴지만, 더 많은 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갈망이 컸다"고 했다. "평소 집에서 '건어물녀'처럼 누워만 있었어요. 평소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는데 많은 선배들을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했다.

막내인 츄는 귀여움으로 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녀는 "고민을 혼자 많이 안고 있어서, 조언을 해줄 '인생 언니들'을 만나고 싶었다"고 했다. '달리는 달달구리'라는 크루 이름도 츄가 지었다. "언니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달달하고 스위트해서 초콜릿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달달한 '달달구리'가 떠올랐죠."

하지만 프로그램 분위기가 밝고 명랑한 것만은 아니다. 츄는 "언니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많이 울었어요. '울음 쇼'가 펼쳐진다고 예고했다. 9일 오후 7시 50분 첫 방송.

# 김종국, 8년 만에 솔로가수... '지우고 아플 사랑은..'

## 작사·작곡 포함한 전반적인 곡 프로듀싱 직접 참여

가수 김종국이 8년 만에 솔로곡을 발표한다.

8일 오후 6시 새 싱글 '지우고 아플 사랑은..'을 발매했다.

겨울의 쓸쓸함과 어쿠스틱 사운드가 주는 파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정통 발라드다.

아팠지만 소중했던 사람의 감정과 기억들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갔다는 절제된 슬픔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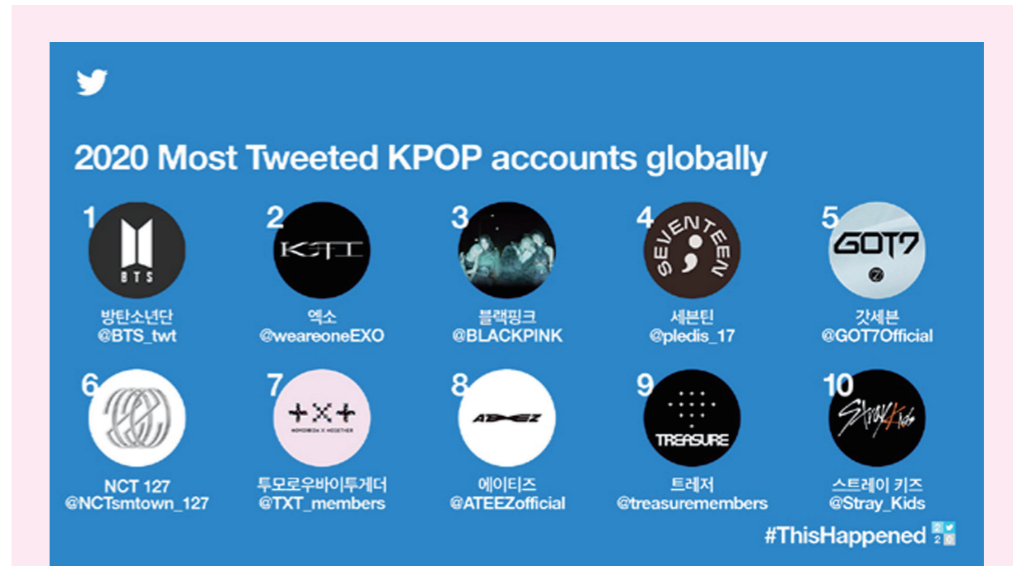
김종국은 작사, 작곡을 포함한 전반적인 곡 프로듀싱에 직접 참여했다.

레드벨벳, 에이프엘, 정승환, 10CM, 산들, 윤미래 등과 작업한 프로듀서 타이비엔

과 바크가 참여했다. AIMSTRINGS가 편곡했다.

김종국은 지난 1995년 듀오 '터보'로 데뷔했다. 이전 마지막 솔로 곡은 2012년 7집 '저니 홈(Journey Home)'과 리메이크 싱글 '희상'이다.

그 사이 터보의 신곡을 내놓았다. SBS TV '런닝맨' 등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누렸다.



## '방탄소년단', 올해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BTS\_twt)이 K팝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트위터에서 올해도 가장 주목 받았다.

8일 트위터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계정', '가장 많이 언급된 K-팝 계정', '가장 많이 언급된 뮤지션 계정'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017년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계정으로 선정된 후 올해 '4년 연속'이라는 타이틀도 거머쥘었다.

방탄소년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트윗' 2위에도 올랐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공식 트위터 계정에 게재한 미국 싱어송라이터 라우브(Lauv)의 '네버 나트(Never Not)' 커버 영상이 담긴 트윗이다. 누적 조회수 3500만 회와 140만 건에 달하는 리트윗, 300만 건이 넘는 '마음

에 들어요'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트윗 1위에는 영화 '블랙팬서'의 주연 배우 채드윅 보스만의 죽음을 기리는 트윗이 선정됐다.

또한 K팝 관련 트윗 중 가장 많은 '마음에 들어요'를 받은 트윗 상위 5개가 모두 방탄소년단 트위터 계정의 트윗으로 확인됐다.

1위는 방탄소년단 멤버 뷁가 'Hi Army'라는 글과 함께 올린 사진으로 320만 건에 달하는 '마음에 들어요'를 받았다. 2위와 3위는 정국의 커버 영상 트윗이다. 4위는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1위에 오른 뒤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Army)'와 수상의 기쁨을 나누는 트윗이다. 5위는 방탄소년단 리더 RM이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올린 트윗이 선정됐다.

# 박찬호 X 박세리 X 박지성 몽친다

## MBC 새 예능 '쓰리박'

대한민국 스포츠 레전드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이 MBC 새 예능물 '쓰리박(가제)'으로 몽친다.

8일 '쓰리박' 측은 "대한민국 최초 메이저리거이자 영원한 코리아 특급 박찬호, LPGA 아시아 최초 우승자이자 IMF 시절 통쾌한 샷

로 국민들을 열광시켰던 골프 여제 박세리, 최초의 한국인 프리미어리거이자 대한민국 축구계의 산 역사 박지성과 함께 특급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어떤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프로젝트의 정체는 내년 초 첫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